

비행기를 접는 유목민의 자녀, 하늘을 꿈꾸다

독특한 이름의 소년 이구름. 1994년 2월 6일 홍콩의 카노사 병원에서 태어난 미애, 루이 씨의 큰아들이지만 '유목민의 아들'이란 호칭이 더 어울린다. 1년간의 긴 여행을 경험한 아이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미애 씨의 집을 찾았을 때 우리들의 방문을 가장 먼저 반겼던 것은 여

덟 살 소년 이구름과 개 꼬삿이었다. "꼬삿 아가들 때문에 바닥이 지저분해요.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318일간의 여행에 동행했던 꼬삿이 무려 아홉 마리의 새끼를 낳은 것.

두 가지 미션 "아버지와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교 공부가 더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받아쓰기도 하거든요." 이구름 군은 학교생활을 소개한 후 두 가지 미션을 공개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미래에 조종하게 될 비행기를 그리고 만드는 일. "겨울방학 선물을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저는 비행기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조립비행기를 완성해가겠지, 짐작했지만 아이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예술가처럼 나무도

막 하나로 직접 배를 만들었을 때를 설명했다. 텔레비전 프로와 연예인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이 꼬마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기와 여행에 대한 꿈이다.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어디를 여행하고 싶니?" 노련한 여행가 이구름이 추천하는 여행지는 태국이었다.

"태국에 있는 '코사모이'라는 섬이 제일 좋았어요. 거기 바다도 좋고, 무엇보다도 손으로 직접 짐계를 잡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는 전주가 제일 좋았어요. 산에 갔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쯤 되면 이구름은 꼬마가 아니라 여전한 여행가다. 그리고 미래의 조종사로서 벌써 코사모이 섬 위를 날고 있다. 이 시대 유목민의 자녀는 공부를 강요받지 않았다. 차분하게 자신의 관심사를 말하고, 스스로가 꾸었던 꿈들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여행의 가르침일 것이다.

겉 없는 소년 소녀 아버지 루이 씨가 만든 이구름과 릴라 남매의 침대 위에는 이구름의 애장도서가 놓여 있다. 이구름이 추천하는 '내 인생의 책 한 권'은 《피노키오》다. 손때 묻은 동화책에는 '1998년 외할머니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세 살 때 읽었는데 지금은 동생 릴라가 읽고 있어요. 코가 커지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보니 릴라, 이구름 남매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겉이 없는 편이다. 이들은 얼마 전 태어난 꼬삿의 새끼들을 안고 놀고, 큰 개 꼬삿과 서슴없이 장난을 친다. 이들에게 꼬삿은 개가 아니라 가족이다. 그래서인지 이구름은 요즘 꼬삿 새끼들을 데려갈 주인 후보들을 신중하게 면접하느라 바쁘다. 면접 기준은 "멋으로 개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불가"이다. 이런 판단력 역시 여행가의 한 면모일 것이다. 여행은 늘 '판단'을 요구하므로.

유목민의 후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란, 파키스탄, 인도, 네팔, 중국, 그리고 한국. 부모와 함께이긴 하지만 넓은 세계를 만나고 돌아온 아이는 어른스러웠고 순수했다. 먼 훗날 이구름은 그림 속의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고 그 경험들을 책으로 엮음으로써 유목민의 후예 역할을 할 것 같다. **유목민**

김청연 기자